

병원탐방

인천 중앙길병원 물리치료실

인천 남구 구월동의 맑은 공기와 탁트인 대로에 우뚝 솟은 중앙길병원으로 들어섰다.

7월 초에 찌는듯한 더위가 병원에 막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신축병원 답게 부러움이 앞섰다.

우선 병원 설립 목적을 보면 비영리적 의료법인으로서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과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원훈인 박애, 봉사, 애국을 가지고 1968년 이 길너 의원을 개설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1978년 인천 길병원으로 승격되 사회에 많은 기여와 친절을 제일 우선으로 해왔다고 한다.

1987년 3월 25일 구월동에 800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야간병원인 중앙길병원을 준공시켰고 모든 접수과정이 전산화 처리되어 환자 진료시간과 업무처리 과정이 무척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병원의 성장과 함께 물리치료실 또한 커다란 발전을 해왔다.

물리치료실은 전기치료실, 기능훈련실, 작업치료실, 수치료실로 각각 나누어져 있으며 3분의 물리치료 선생님과 간호원이 한 식구를 이루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물리치료실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기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과 다정한 대화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다.

특히 “人和團結”을 강조하는 실장님은 우리 병원은 병원과 직원을 칭할때 우리집, 우리식구란 명칭을 사용한다며 이것은 직원 상호간에 거리감을 없애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다고 한다. 물리치료실에서는 인화단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인화단결이 되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수 있고 그 결과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재삼 말씀하는 얼굴에서 중

앙길병원의 물리치료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이 있으리라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취재부장 이정근)



명언록

베풀면 베풀수록 행복한 것  
너에게는 너만의 향기가 있으니  
그것을 베풀어 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